

'응원봉 소녀'의 문화정치

- 동시대 한국소설로 본 아이돌 팬의 초상

전예원(성균관대)

1. 12.3 광장의 스펙터클 : '응원봉 부대'를 향한 상찬과 염려(들)

- '응원봉 부대'를 향한 낮익은 상찬과 때이른 염려
→ 언론매체의 시각 : 새롭고 놀라운 집회문화, 102030 여성 참여자의 높은 참여율
VS K-POP 팬덤의 소비자주의에 대한 경계, 일상으로의 회복을 강조하는 '광장정치의 무력화'
→ 촛불과 깃발 뒤에 손에 든 것이 아이돌 팬덤문화의 상징물인 '응원봉'이었다는 사실이 섬세하게 분석되어야 함.
- 여기서는 12.3. 광장정치에 참여한 여성들을 '응원봉 소녀'로 호명하고자 함.
⇒ 응원봉 소녀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반발하여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한 아이돌 팬들을 일컫음. '응원봉'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주체를 '촛불소녀'로 말해지는, 광장정치에 참여한 여성 주체의 계보 뒤에 두기 위한 조어.

2. 재현과 재림, '촛불 소녀'에서 '응원봉 소녀'까지

이제까지 문화연구에서 시도된 아이돌 팬 문화 분석의 초점은

① 능동적 수용자, ② 소비자주의 비판, ③ 페미니즘 운동의 여성 행위자 등으로 분류, 계열화 할 수 있음.

① 능동적 수용자론에 입각한 접근들 → 아이돌 팬이 지닌 의미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팬덤 문화정치 연구의 중요한 논점을 제시.

② 아이돌 산업과 플랫폼 자본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군의 연구들 → 자본에 포획된 플랫폼이 자생적으로 생성된 온라인 풀뿌리 커뮤니티의 기반을 파괴, 아이돌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팬 플랫폼이 '진정성'이라는 감정 자본을 매개한다는 주장들.

③ 아이돌 팬덤문화의 양식과 페미니즘 운동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 → 2010년대 한국사회의 여성주의 담론 재부상한 시기와도 맞물림. 광장에서 2030여성의 만남과 발화가 어떻게 응원봉을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

광장정치와 '응원봉 소녀'의 계보

-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광장문화의 문화화, 축제화 현상
- 광장정치의 여성 참여자를 일컫는 단어들의 등장 : '촛불소녀, 배운여자, 유모차부대, 하이힐부대, 응원봉부대'
- 그러나 응원봉의 의미는 촛불과도, 깃발과도 무척 다름
→ 광장문화와는 별도, 이미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물건. '팬심'을 표출하기 위한 소비가 반드시 동반된다.
- 촛불, 깃발처럼 비폭력, 반폭력의 함의 갖지도 않음.
- ⇒ (전)대통령 퇴진 집회에 등장한 응원봉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광장정치에 참여한 여성주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아이돌 팬덤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응원봉 소녀'라는 기표의 공회전?

- ⇒ 익숙하지만 새로운 얼굴로 재림을 반복.
- '팬덤의 정치적 수행, 소비자의 횡포(?), 여성 청년의 주체화 과정' 그 모든 것을 매개하는 '최애를 향한 사랑'이 비가시화 됨.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광장으로 소환하게 된 강력한 동기는 '사랑의 이름으로 (윤석열) 널 용서하지 않겠다'

3. 동시대 한국문학의 풍경 : 사랑, 자본, 그리고 '덕질'의 딜레마



응원봉 소녀에게 '사랑'은 복잡한 의미를 갖는 에너지
⇒ "사랑받을 자격" (안희제, 2023) 이 덕질의 핵심 기제. 응원봉 소녀들은 언제든지 거두어들일 준비가 된 사랑을 대상에게 맹목적으로 쏟아부으면서 "길티 플레저" (안희제, 2023)를 느낀다.

- 는 키워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이 주목됨.
- 문예지들의 '덕질' 특집 → 대상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미화
- 동시대 소설들 전면에 등장한 '덕질'
- 조우리, 『라스트 러브』(2019) : '여덕'이 쓰는 팬픽이 두 가상적 존재—아이돌이라는 가상과 팬픽 속의 허상—를 성공적으로 매개.
- 권혜영 『사랑파먹기』(2023) : '포카' 거래와 '시즌 그리팅' 달력, '생일카페' 등 온갖 소비로 이루어진 덕질 문화, 그로인한 회의감과 중독성.
- 이유리 「둥둥」(2020) : '탈덕'할 수 없는 팬의 마음을 SF 상상력을 통해 서사화.
→ 팬덤 내부의 문화, 자본을 매개로 한 친밀성, 퀴어한 욕망의 재현. 응원봉 소녀를 향한 상찬에서 망각된 사랑이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
- 응원봉 소녀를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일이 맞닥뜨리는 딜레마
→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골몰할 경우, 자기폐쇄적 욕망으로 회수. 반면 K-pop 산업과 자본을 과하게 의식하여 쓰일 경우 사랑이라는 감정의 정치적 역량은 축소해석 됨
⇒ '덕질'과 '광장'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4. '크리미널 러브'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간 여자들' 사이: 이희주를 경유하여

모든 사태를 지나오며 내가 겪은 시민 되기-삶-죽음도 불사할 순결한 사랑—빠순이 되기의 연결을 설명할 말은 아직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찢어져 있었고, 지금도 찢겨 있고, 이젠 그런 나를 훼매고 싶다.(중략) 내가 골방에서 행하던 사랑을 어떻게 광장으로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내 사랑의 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며 겪은 모순을 토로할 때 '그게 뭔데 씹덕아' 같은 반응을 듣는 대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청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나'의 지독히 사적인 사랑을 위해 연대할 수 있을까?
- 이희주, 「12월 3일 이후 풍풍짱이 겪은 이상한 사건의 전말」, 문학동네 2025년 봄호

- 이희주 : 아이돌 팬의 '위험한' 성적 욕망을 묘사한 소설들을 내놓고 있음. 대표적으로 『환상통』(2016), 『성소년』(2021), 『최애의 아이』(2024)에서 사생팬, 아이돌 납치 강간, '최애'의 아이를 임신한 '줌마팬'을 다룸.
- 근작 「사랑, 하고 있습니까」(2025)에서는 퇴진집회의 장면을 직접 제시 ⇒ 광장에 선 '응원봉 소녀'들의 위험한 욕망과 내부의 위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닐까?
- 12.3 퇴진시위 광장에 나간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쓰기도 함
⇒ 소비주체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주체'라는 자기모순을 끌어안고서도 충분히 타자의 정치와 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